

농촌관광의 패러다임적 전환 모색
- 책임관광의 가능성 탐구-

권순복 · 김한준

목 차

I.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II. 농촌관광의 패러다임적 전환

1. 농촌관광의 기존 패러다임
 - 1) 농촌관광에 대한 학문적 편식
 - 2) 관광객들의 무책임한 농촌소비
 - 3) 농촌의 계몽과 진흥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정책
 - 4) 농촌을 무대화 시켜버린 미디어의 왜곡된 시선
2. 농촌관광의 신 패러다임
 - 1) 봉사하는 여행자
 - 2) 공정하게 책임지는 여행자

III. 연구 방법

1. 연구 패러다임 : 통합적 연구
2. 자료의 삼각화

IV. 한국농촌의 책임관광 실태조사 결과

1. 참여관찰
 - 1) 주최측 소개 : 서울지 자원봉사 센터
 - 2) 자원봉사 활동 일정
 - 3) 참가한 봉사자들의 역할
 - 4) 봉사자들의 행위
 - 5) 봉사센터 관계자와 일방봉사자의 담론
2. 인터뷰
3. 설문지

V. 시사점

1. 농촌책임관광의 이해 부족
2. 농촌책임관광의 가이드라인 부재
3. 농촌책임관광의 시민활동 미비

VI. 농촌 책임여행을 위한 대안

1. 책임있는 관광객 행동 촉구
2. 농촌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정책 전개
3. 미디어의 시점 전환
4. 농촌 책임여행에 관한 학문적 체계 구축

VII. 결론

참고문헌 / 부록

I. 서론

1. 문제제기

농촌관광이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을 말한다. 대개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이라 한다. 예를 들면 농가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특산물·음식 등 상품을 개발하며, 이벤트와 농사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농업외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농촌체험 관광전략이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위해 새로운 건물들과 새로운 이벤트,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놓음과 동시에 최근 몇 년간 농촌관광을 위해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였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는 상관없는 거대 자본들의 이입으로, 관광객들이 그 지역의 물건과 건물, 상점 등을 사용하기보다는 시설이 좀 더 좋고 편안한 거대 자본들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관광객들이 지출한 돈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기업에게 돌아가면서, 농촌 관광은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자본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출이 당연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에코투어, 그린투어라는 명목아래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속의 휴식을 찾기 위해 농촌으로 관광을 간다. 그 곳에서 갖가지 체험과 관광을 즐기므로 관광객들은 기존에 누리지 못한 휴식을 누리고 돌아간다. 이로 인해 많은 농촌에는 외부인들의 방문이 잦아지게 되었고, 농촌지역 주민들은 외부인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며 관광객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농촌관광이 자리 매김 하면서 관광객과 농촌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관광객의 잘못된 윤리의식으로 농촌의 자연은 파괴되어 갔으며 관광객의 소비가 농촌사람들에게 직접 분배되기 보다는 관광지의 발전성을 알게 된 기업들의 투자로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즉, 관광객들의 소비가 농촌사람이 아닌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농촌사람들은 자신의 생활터전과 그들에게 소중한 자연을 내어주게 되었다. 결국 관광자도 농촌을 위하고 돕는다는 생각아래 관광을 즐기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농촌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소비를 못하게 되었고, 농작물 훼손 및 자연환경파괴라는 피해를 주고 말았다. 또한 많은 농촌관광을 주제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농촌의 변화를 촉구한다. 농촌이 변하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촌 주민이 되어야한다고 연구 되어왔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농촌주민들은 관광객 맞이를 위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관광객들의 농촌관광에 관한 의식은 변하지 않았다. 관광객들은 관광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광을 하기 보다는 관광지에서의 주인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은 관광객들로 부터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관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어느 세 관광

객들에게 피해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관광객은 지역주민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농촌은 불편하다는 등으로 현지인의 것들을 꺼리게 되었고, 농촌지역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관광을 하는 관광객들에게 윤리적인 여행을 하도록 새로운 인식을 주기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책임여행이다.

진정한 에코여행과 생태여행, 농촌관광을 하려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책임여행을 해야 진정한 여행을 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자연과 생태를 파괴 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사이의 이질감이 생긴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에코와 생태 관광이 이겠는가. 그곳에서 살고, 그곳을 가꾸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돌보는 곳이 파괴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을 관광하는 여행자의 여행형태와 여행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여행자들의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농촌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류 및 조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관광객의 윤리적인 소비로 인해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투어, 생태관광 봉사관광을 하고 있는 여행자를 만나 여행 중의 행동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행자의 행동과 인식의 분석을 통해 책임 의식을 가진 새로운 여행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둘째, 여행자들에게 책임 있는 공정한 여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여행자들의 책임 있는 의식과 윤리적인 소비가 농촌지역의 생태보존과, 경제적 이익을 주어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다 .

II. 농촌관광의 패러다임적 전환

1. 농촌관광의 기존 패러다임

현재, 국내에는 농촌관광을 위하여 많은 농어촌 마을이 관광마을로 되어있다. 체험, 생태, 테마를 가진 관광마을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려 650개의 마을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다. 즉, 농촌관광을 위하여 농촌은 관광마을로 변화 되었다. 그 중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27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1> 농어촌 관광마을 현황 2007년 12월

구분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림수산식품부)	어촌 체험마을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테마마을 (농촌진흥청)	산촌 생태마을 (삼림청)	아름마을 (행정자치부)	합계
계	274	87	113	153	23	650

자료 : 한국관광공사

1) 농촌관광에 대한 학문적 편식

농촌관광은 유럽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농업의 전통적인 기능에서 서비스적 요소, 즉 관광이라는 위락적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농촌관광이 도입되고 있다.(Page & Getz, 1997). 초기에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활동이라는 정의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포괄하는 개념적 정의로 확대되고 있다.

<표 2> 각 학자별 농촌관광의 정의

학자	농촌관광의 정의
Keane, Brophy & Cuddy (1992)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광의 형태
OECD(1994)	농촌에서 발생하는 관광
Sharpley(1997)	시골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광임을 강조하면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Mason & Cheyne (2000)	공간적 혹은 기능적으로 농촌을 목적지로 하여 기존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농촌의 문화나 자연환경·역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형태
박석희(2001)	농촌지역에서 그 곳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지닌 농촌다움을 핵심편익으로 상품화한 관광
농림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	농촌이라는 장소에 대한 보편적 특성, 즉 농촌성(rurality)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활동을 지칭하는 개념
Lane(1994)	단순한 농촌체험활동(farm-based tourism)이라기보다는 다면적인 체험중시 활동
농림부(2004)	“농촌관광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이며, 도시민에게는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농산물판매(1차), 가공 산업(2차), 숙박, 음식물, 서비스(3차) 등 소득원을 제공하는 지역 활성화 운동”
한국관광공사(1996)	“농어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시설, 판매, 직판시설 체험, 관찰시설, 편의·휴양시설, 체육·운동시설 등 농업관련시설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하고, 이용객에게 숙박·음식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농어촌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관광활동을 농어촌관광” 이라고 정의 하였다.
박호균(2002)	농촌공간에서 농촌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방문객들에게 사회적 여가행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

류선무(2003)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여가활동
강신겸(2002)	도시민들이 농촌다움이 보존된 농촌에 머물면서 그 곳의 생활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

자료 : 강신겸(2007), 농촌관광.

즉, 농촌관광은 “농·산·어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혹은 농·산·어촌지역의 자연적·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지역 주민이 이를 관광매력물(Attraction)로 제공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농촌관광이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농촌의 생태와 체험을 주요시하면서 기존의 편함과 안락함만을 찾는 관광과는 다른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린투어리즘이다.

강신겸(2007)은 그린투어리즘이란, 농촌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활동이라고 정의 하였다. 관광객은 농촌이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 돌아가게 된다. 여기에서 농촌은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된다.

강신겸은 그린투어리즘을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통해 도시민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농촌주민 스스로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며, "농촌이나 어촌, 산촌, 지역사회의 풍습이나,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지역전통을 반영한 이벤트 참여 등이 중심이 되는 관광 활동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농촌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고, 관광객의 교육적 욕구도 만족시키며, 자연에 바탕을 두고 환경보존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관광의 형태중 하나라고 했으며. 색다른 문화 체험 및 지역사회의 풍습을 익힐 수 있는 농촌관광활동'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생태관광은 생태·문화 환경이 우수한 대상지의 자원보전 및 유지에 기여하는 적극적 형태로, 대상지 내에서의 휴식·체험·교육 등의 활동이 포함되는 관광활동이다.(Ross & Wall, 1999) 생태관광은, 농·산·어촌관광과 문화관광을 일부포함하며, 생태관광은 반드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김성일, 1999) 이 처럼 농촌관광의 기존 패러다임은 농촌이 관광객을 위해 체험 및 휴식을 제공하고, 관광객은 농어촌 지역을 방문해 체험 및 휴식 등 서비스를 제공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시각은 기존의 학술 논문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논문검색 포털사이트인 DBPIA와 KISS의 검색결과에 의하면 2001년 이후 농촌관광관련 논문들이 총 213편으로 나타났다. 그 중 농촌관광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54편이며, 주민참여 및 육성에 관련한 논문이 46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3> 2001~2009년, Dbpia, kiss 논문 색 자료 분석

구 분	주요 키워드	논문 갯수
농촌의 활성화	지역 활성화, 민박 활성화, 경영 활성화, 녹색관광 활성화, 비즈니스의 활성화, 문화관광의 활성화, 지역축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학습모임 활성화, 농촌관광 활성화,	54
주민참여 및 육성	지도자 및 주민 교육, 집중 육성, 경관농업 육성, 지역사회 애착심, 지역주민 교육, 관광객과의 인식의 차이, 갈등의 원인, 주민생활 실태, 주민의식, 주민주도, 주민 환경인식, 서비스 품질, 희생, 노인의 역할, 지도요원의 역할,	46
마케팅적 대안	문화 마케팅, 접근성, 브랜드 자산가치, 안동한우 브랜드, 향토 음식점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	11
환경 및 공간 조성	환경정비, 친환경 농업, 마을정비, 커뮤니티 공간, 토지 환경, 공간계획, 숙박 공간, 입구 공간, 외부 공간, 생활공간,	15
프로그램의 개발	체험관광, 환경해설 프로그램, 환경축제, 마을축제, 지역이벤트, 향토음식 개발, 레크리에이션, 연계프로그램	18
선호	도시민 선호, 농촌 관광지 선호, 체험관광프로그램선호, 관광객 선호, 유형별 선호,	15
자원 및 활용방안	관광자원, 문화자원, 어메니티자원, 생활문화자원, 친환경적 자원, 마을자원, 생태·문화·체험자원, 인적자원, 산림자원, 농촌공간의 부가가치, 마을 숲 활용, 전통숙박시설 활용, 저수지 활용,	38
기타	기대, 현실, 문제, 기회 스펙트럼, 관광객의 편익, 리더십, 사회자본, 비용편익, 이용자 및 방문객의 충성도	16
계		213

자료 : Dbpia, kiss 검색 결과

2) 관광객들의 무책임한 농촌 소비

농촌관광이란,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광의 형태를 말 한다.(Keane, Brophy & Cuddy, 1992) 현대를 살아가는 관광객들은 여가 시간의 증가로 관광을 떠난다. 그린투어리즘이라는 명목아래 자연을 체험하고 농촌을 체험하기 위해 농촌으로 관광을 떠나는데 여기에서 관광객들은 농촌을 단지 소비에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농촌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또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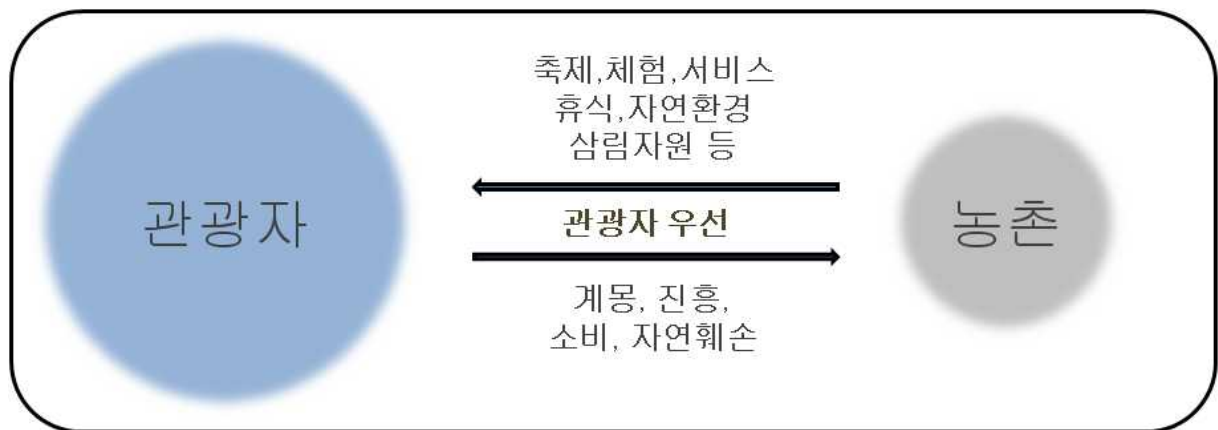
이러한 방법으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켜야 농촌이 발전한다는 일방적인 결론이 이어졌다. 그래서 현재 까지 농촌은 관광객들에게 체험프로그램, 자연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갖가지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수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이 방법만이 농촌사람들의 생활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관광객과 농촌사람들의 우위관계가 조성되었고 관광객들 역시 농촌을 소비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

진정한 농촌관광을 위해 이제는, 제도적인 이벤트의 생성보다는 관광객들의 인식 변화

로 인해 관광객이 농촌을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관광객과 농촌지역주민들이 서로 공존하고 교류 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관광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광자는 농촌지역이 계몽, 진흥,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비 및 자연훼손을 하는 등의 관광객의 농촌 소비현상이 일어난다.



<그림1> 농촌관광의 기존 패러다임 구성도

3) 농촌을 계몽과 진흥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정책

2000년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앙정부의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매년 100여개 이상의 마을이 농촌관광 관련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7년 현재 전국 76개의 권역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과거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건설하지 못했던 도농교류센터 등의 규모 있는 시설들을 포함한 기초생활시

설, 문화·복지 시설, 농촌관광시설, 환경시설 등, 관련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건설 되고 있다.

<표 4> 200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메뉴

구 분	주 시설	세 부 내 용
기초생활시설	도 로	연결도로, 마을안길, 자전거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등
	주 택	주택신축,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기 타	정보화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문 화	다목적회관, 야외소공연장, 마을박물관, 고인돌보존, 시골장터정비, 향토문화재(효열각, 효자문, 열녀문 등)·마을유래비 등
	복 지	건강관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소득기반시설	소득기반	농산물 공동가공·건조시설, 공동 집하장, 공동창고, 선별시설, 공동 판매장, 공동육묘장, 공동퇴비사, 정미소현대화, 뚝밥발효시설, 읍 저장고 등
농촌관광시설	관 광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권역안내도, 장승, 방앗간복원, 빨래터 조성, 정자·원두막, 간이천문대, 야영장, 관광안내소, 농촌체험시설, 생태학습장, 폐교임대활용 등
경관시설	경 관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 정비, 빈집정비, 경관형성계획수립, 사립문 정비, 경관저해시설 정비, 경관주택정비 등
환경시설	환 경	오·폐수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생태공원, 야생화 군락지 복원, 어류서식지 정비, 생태하천 정비, 대체에너지 시설 등
운동·휴양시설	운 동	운동시설(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소규모 논썰매장 등 레포츠 시설
	휴 양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원두막, 삼림욕장, 심신단련장 등
재해대비시설	생산기반	농로, 용·배수로, 관정시설, 옹벽, 취입보 정비 등
	재 해	소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
인구유치시설	주거단지	도시민·은퇴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존마을 재개발·재정비, 전원주거단지 조성 등
	주택용지	도시민·은퇴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한 빈집, 유휴토지 등을 활용 계획 등
마을기획 및 운영(S/W)	교육·훈련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훈련, 교육비품·장비, 마을해설사 양성 등
	홍 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캐릭터(브랜드)개발, 마을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장비 설치 등
	마을 운영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프로그램개발·보급, 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 마을 컨설팅, 권역사무장채용 등

자료 :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 2007)

또한, 기존의 생산시설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한 농촌개발 관련 사업들도, 사업의 내용들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농촌관광 관련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의 소프트

웨어 개발로 선회 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낙후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소득기반 시설을 갖추어 2007년에는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이 시행되면서 농촌관광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관련교육사업,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07년 마을가꾸기 사업의 현황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이 40~70억 원을 들이는 대규모 사업이고, 그 뒤를 해수부가 ‘어촌종합 개발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표 5> 중앙정부 부처별 마을가꾸기 사업 현황(2007)

사업명	부처명	투자액	투자 단위	시행/완료 사업수	주요 사업내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	농림부	2억 원	법정리	190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주민교육, 컨설팅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림부	40억~70억 원	권역	56+(20)	정주기반시설 이외에 농촌관광관련 시설(문화·복지시설, 농촌관광시설, 경관시설, 운동·휴양시설)구축	주민교육, 컨설팅, 홈페이지 개발, 마을축제지원 등
전통테마 마을사업	농촌진흥청	2억	법정리	97	체험/학습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환경정비, 경관조성	마을주민교육, 소득자원개발, 홍보, 프로그램개발
산촌생태 마을조성 (과거산촌 종합개발사업)	산림청	14억	권역	136	농촌관광 관련 사업메뉴로 산촌체험 및 녹색관광 시설(산촌체험숙박시설, 삼림욕장, 임업 및 산촌체험시설, 등산로 등 산촌관광 기반시설)이 있음. 이외에 생활개선, 생산기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음.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훈련, 마을 및 숲 해설가 양성, 홍보·마케팅 지원, 마을캐릭터(브랜드)개발, 마을홈페이지 구축, 마을컨설팅, 공사감리 등 *2007년도 사업부터 실시
어촌종합 개발사업	해수부	35억	권역	152	공공 생산기반시설, 관광기반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사업을 지원	
어촌체험 마을사업	해수부	5억	어촌계 단위마을	75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의 관광기초기반시설	컨설팅, 실시설계, 주민교육 훈련, 팸플릿 제작 등
정보화 마을사업	행자부	3억	법정리/면	304	마을정보센터(커뮤니티센터)구축, 컴퓨터 보급	마을홈페이지 제작, 정보센터 운영교육, 민박, 농촌체험교육 지원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문광부	20억	도별	5~6개 (총 12개 조성 예정)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 개발	역사마을체험 프로그램 및 마을운영 프로그램 개발

자료 : 2006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농림부, 2007)

정부는 농촌관광발전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까지 계속되고 있다.

4) 농촌을 무대화 시켜버린 미디어의 왜곡된 시선

관광자원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것이 미디어이다. 한국드라마와 영화 등 문화 서비스에 대한 것이다. 최근 외래 관광객의 비중에서 이른바 ‘한류’ 붐을 타고 아시아에서 들어온 외래 관광객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만큼, 문화 서비스는 국내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에 이야기 거리를 부여하여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지역에 영화 촬영을 유치하고, 세트장 설치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는 것도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을 경우, 영화 촬영지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국내 인기 예능프로그램 중 매주 주말에 방영되는 ‘1박 2일’ 과 ‘패밀리가 떴다’ 는 농촌을 배경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미디어이다. 이 두 예능프로그램은 농촌을 소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 예로 첫째, ‘1박 2일’ 은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 즉, 농촌을 선정해 시청자에게 소개하고, 관광지에서 체험 한다는 모티브를 띄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시청하다보면 연기자들끼리만 방송에 나와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고 동화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장소를 미디어의 횡포에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패밀리가 떴다’ 이다. 이 프로그램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렇다. 보상관광을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주인을 다른 곳으로 여행 보내고 출연진들은 미디어 재미있는 모습을 제공하기위해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연기 하고 있다. 이 역시 지역주민들과 동화되어 함께 교류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두 미디어가 행하는 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촬영을 하면서 지역사회 주민과 어울리지 않고 촬영도중 지역주민에게 방해가 되는 시끄러운 게임들과, 촬영에 관계된 관계자 이외의 지역주민들은 구경만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미디어가 농촌을 소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 미디어의 눈으로 제공되는 농촌의 모습들을 시청자들은 잘 구별하지도 못한 채 농촌을 바라보고 있다.

2. 농촌관광의 신 패러다임

1) 봉사하는 여행자

21세기는 삶의 가치가 여가, 문화, 관광 등 체험 및 감성시를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함에 따라 관광산업은 21세기 체험경제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하고(서울특별시, 2006)있으며, 21세기 화두는 환경과 책임의식이다. (최혜경, 2009)

여행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 관광객의 여행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봉사관광이다. 자원봉사 활동은 국가에 따라, 사회에 따라, 학자에 따라, 활동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는

데, 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각 학자별 자원봉사의 정의

학자	자원봉사의 정의
조휘일 2002 : 31	특정한 요구의 인식하에 사회적 책임감의 태도를 가지고 금전적 이득에 대한 관심 없이, 또한 기본적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동할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뤄지는 활동
김영호 2003 : 18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아무런 대가없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현대 :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 행동으로 범위 확대
데커(Dekker 2002)	자원봉사를 보다 광의적인 시민사회 시각에서 비강제적, 무보수 활동이며, 동시에 공익적으로 사회 전체 또는 특정 조직을 위해 그리고 “조직화된 배경”(organized context)에서 이뤄지는 활동
미국사회사업백과사전	자원봉사란 욕구가 인식되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태도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은 자선이나 대가를 기대하거나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을 초월하는 의미 (김영호 2003: 19)
영국 정부의 자원봉사국 (Volunteering Unit 1995)	사회, 공동체 환경 그리고 자신의 친인척 이외의 개인들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의 실천이며, 자유롭게 선택에 의해 재정적 이득에 관계없이 이뤄진다 -> 이는 자발성과 무보수성, 공익성, 이타성을 기본정신으로 중요시함
UN 자원봉사조직 UNV(1999)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웃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기여하는 비영리, 무보수, 비상근 활동
세계자원봉사자선언 (1990)	1.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2. 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는 것 3.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삶의 질, 인간 상호간의 연대감을 드높이는 것 4. 조직적 형태를 지니면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는 활동 5. 현재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도전, 즉 더욱 선하고 평화로운 세계의 창조를 위한 응답 6. 경제생활의 활성화에 공헌하고 직업이나 새로운 전문가를 창출하는 것 등으로 정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게임의 공식 보고서 (Moreno et al. 1999)	자원봉사자는 올림픽 게임의 한 조직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며 이타적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보상이나 보수를 받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료 : 주성수(2005), 자원봉사.

따라서 자원봉사를 “개인 자신이 선택한 자원복지 기관을 통하여 활동하고 창조하고 실험하며 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자유와 민주적 과정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활동” 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자원봉사를 “자원봉사정신(Volunteerism)으로 알려진 일련의 가치지향과 자발적인 구조 또는 조직이 ‘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현 된다.” 고 지적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가치지향이란, 자원봉사 정책입안, 계획수립, 대변, 행정, 지원 등을 모

두 포함하며, 자발적 구조 또는 조직 ‘이란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비공식적 자조 집단부터 학교, 공공기관 등 공식조직에 이르는 모든 조직을 포괄한다. 따라서 자원봉사란 자원봉사 정신에 따르는 자발적 활동뿐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직과 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봉사의 개념을 가진 관광의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봉사관광(Voluntour)이다.

자원봉사관광(Voluntourism)은 자원봉사활동을 뜻하는 ‘볼런티어(volunteer)’와 여행을 의미하는 ‘투어리즘(tourism)’이 결합된 신조어다. 지구촌 및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배우고, 새로운 자연과 풍경을 만나는 여행을 뜻한다. 볼런투어리즘은 긴 휴가를 갖는 선진 국민들이 교육과 보건 등이 낙후한 저개발국에 가서 현지인과 함께 기거하며 ‘노동’을 하는 봉사활동이지만, 넓게는 저개발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회를 갖거나 관광지에서 지불한 돈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행동도 포함된다. 즉, 관광객이 소비할 때 대형마트나 대형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이 운영하는 가게나 민박집에서 머물며 소비하여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관광객의 소비의 행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환경과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관광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것도 자연과 사람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활동이라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볼런투어리즘은 저개발국가에서 행해지는 해외 봉사활동에 한정된 의미가 아니라 여행과 결합된 봉사활동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동반한 봉사활동은 모두 볼런투어리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난 태안기름유출사건이 있는 후, 관광객들이 서해안을 찾아, 바위의 기름때를 닦는 일에 앞장선 것도 봉사와 관광이 어우러진 볼런투어리즘이다. 이처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원봉사여행 볼런투어리즘은 종교단체와 자원봉사단체, 국제적인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서울시 자원봉사센터, 2009)

2. 공정하게 책임지는 여행자

봉사활동과 관광이 연계되면서 여행자들의 인식변화와 행동 변화를 이야기하는 책임여행과과 공정한 여행의 개념이 도출 되었다.

책임여행과 비슷한 의미가 내포된 공정여행,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설립된 이매진피스가 공정여행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매진피스는 공정여행에 대해 현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공존한다는 책임감과 민감함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www.imaginepeac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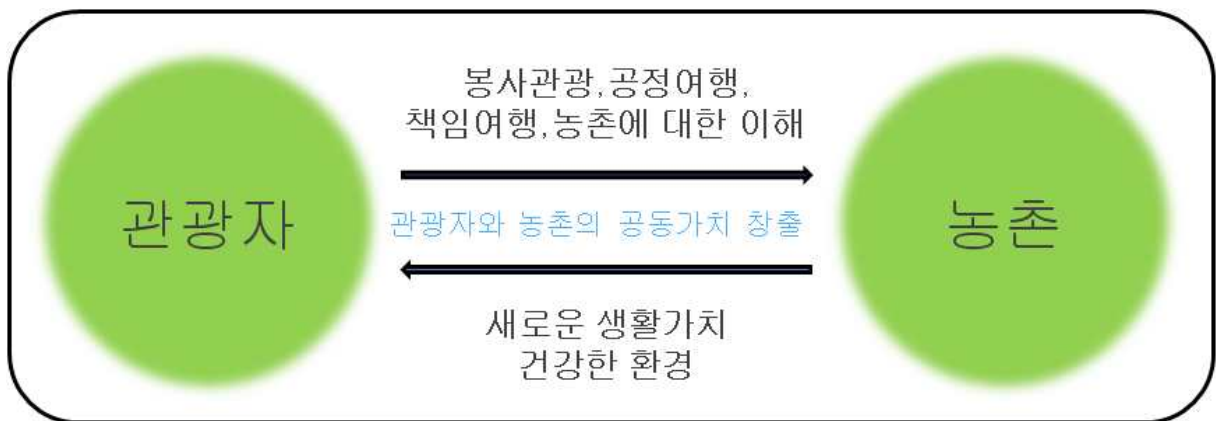
공정여행이란 우리가 여행에서 쓰는 돈이 그 지역과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여행, 우리의 여행을 통해 숲이 지켜지고, 사라져가는 동물들이 살아나는 여행,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경험하는 여행, 여행하는 이와 여행자를 맞이하는 이가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여행, 쓰고 버리는 소비가 아닌 관계의 여행이다. 이러한 공정여행(Fair

Travel)은 공정무역(Fair Trade)에서 따 온 개념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처럼 여행자와 여행 대상국의 국민이 평등한 관계를 맺는 여행을 가리킨다. 여행자의 윤리적 책무를 강조하는 책임여행(Responsible Tourism), 윤리적 여행(Ethical Tourism)등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책임여행이란, 여행이 하나의 외교라는 생각으로 여행지에서 그 지역을 돕고, 그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여행자를 교육하는 것을 책임여행은 여행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여행지의 문화와 자연이 다양성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향유하며 배운다는 것이다.(책임여행을 위한 윤리적인 여행사, (www.ethcaltraveler.org))

책임여행은 윤리적인 것과 인간권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여행객의 프로그램인 홈스테이, 게스트의 오두막, 윤리박물관과 교육프로그램 등이 여행객의 퇴치, 생태관광을 포함한다.(McIaren, 2006) 또한 책임여행의 개념은 생태관광의 정의에서 환경보호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염두 해 두고 자연지역으로 일어나는 관광자들의 책임 있는 여행이다.(Lindberg and Hawkins/1993,1998)

책임여행은 지역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며 가중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생물의 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세계적 이슈인 평화와 가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Tony and Maureen Wheeler, 2008). 책임여행은 근본적인 생태관광에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IBF -> International Bicycle Fund) 책임여행은 여행하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생태관광은 개발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책임여행에 관한연구, 최혜경, 2009 재인용)



<그림 2> 농촌관광의 신 패러다임 구성도

Ⅲ. 연구 방법

1. 연구 패러다임 : 통합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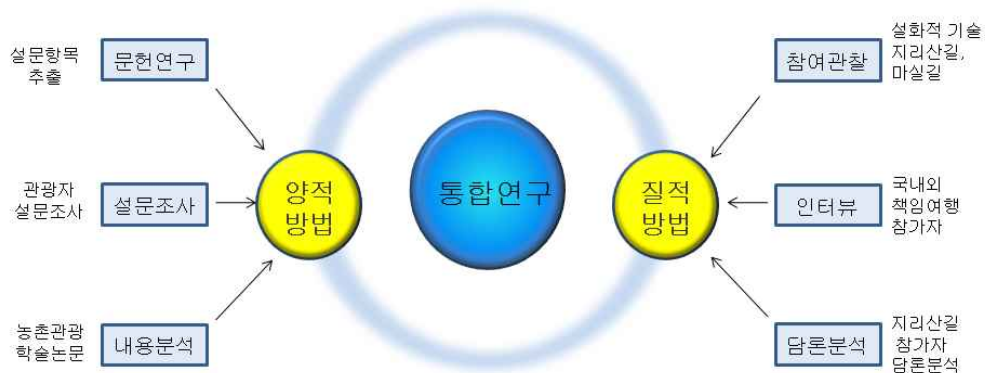
본 연구는 자신의 연구방법론에만 집착하는 순진한 패러다임 논쟁에서 벗어나, 통합주의적 관점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는 곧 관광이라고 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의 시각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관광학의 다학제적 특징에도 부합한다. 먼저 선행 이론을 통해 설정된 독립 변수에 따라 종속 변수가 결정된다는 인과 관계적 시각이 아닌 현상을 발생하게 된 맥락 관계를 파악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례연구이며, 대안적 연구이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농촌관광의 발전 방안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접근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2차 자료에 의한 분석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전라북도 남원시 ‘지리산 둘레길’ 과 전라북도 부안군의 ‘변산 마실길’ 과 ‘지리산 둘레길’ 2009년 8월 13~15일, 9월 25일 총 4일간 직접 찾아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변산 마실길’ 은 2009년 9월 12일 하루 동안 수행하였다.

2. 자료의 삼각화

일반적으로 연구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통 삼각화(triangulation)를 피하는데, 삼각화란 관찰한 자료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관찰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Oppermann, 2000). Denzin(1978)은 삼각화의 종류를 크게 자료의 삼각화(data triangulation: 다양한 자료의 사용), 연구자의 삼각화(investigator triangulation: 각기 다른 연구자나 평가자의 참여), 이론적 삼각화(theory triangulation: 하나의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 여러 연구 분야의 관점을 적용), 방법론적 삼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 하나의 문제나 프로그램을 연구함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최인호, 2004 영상 촬영지 관광객의 체험, 관광·레저연구 학술집 p.110~111)

본 연구의 자료 수집형태는 크게 네 가지 이다. 첫째, 문헌자료 수집이다. 문헌을 통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여행의 형태와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농촌이 실시하는 행동 및 이벤트를 연구 하였다. 그리고 여행자의 인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여행 및 책임여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였다. 둘째, 실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직접 참여해 체험해 보고 여행자들의 행동을 관찰 하였다. 셋째, 반 구조화된 인터뷰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9년 8월 13일, 9월 12일, 9월 26일 해당지역인 ‘지리산 둘레길’ 과 ‘변산 마실길’ 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을 인터뷰 하였고, 서울 광화문역 주변의 카페에서 각각 약 2시간 동안 2회 진행 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미리 작성된 책임여

행에 관한 설문지 50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 자료의 삼각화 구성도

IV. 한국농촌의 책임관광 실태조사 결과

1. 참여관찰

본 연구자는 2009년 8월 13~15일 3일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지리산둘레마을 자원봉사 트레킹’ 행사의 일원으로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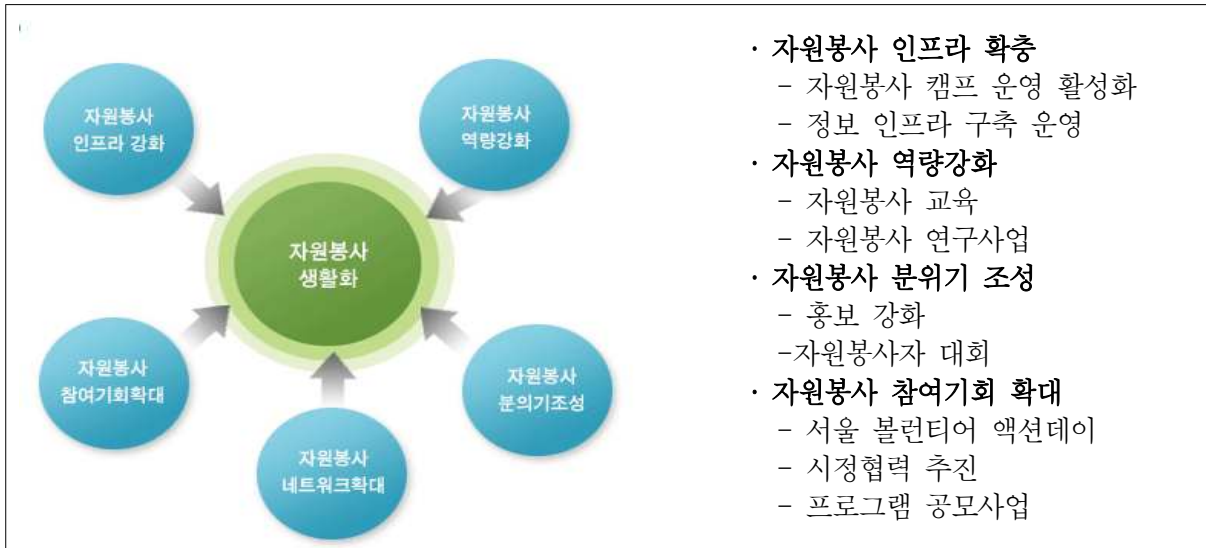
1) 주최측 소개 :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

(사)서울시 자원봉사 센터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고양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조정 및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고양에 힘쓰는 기관이다.

자료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그림 4>핵심과제 및 주요 사업>

2) 자원봉사 활동 일정

첫째 날, 8월 13일 오전 7시 서울시의회 앞에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집결하였다. 봉사자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는 서로 어색했는지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 참여자 모두 본인의 짐을 챙겨서 차량에 탑승하였다. 오후 2시쯤 도착한 봉사자들은 당일 일정을 따라 자연놀이 ‘여치집만들기’, 환경사랑 ‘천연물비누 만들기’, 피로회복 ‘생활 속 건강마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둘째 날인 14일 금요일에는 각 조별로 지리산 둘레에 있는 비전



마을, 군중마을, 회덕마을, 노치마을, 행정마을, 가장마을, 양묘장 7개 마을에 각각 배정되어 자원봉사를 하였다. 마지막 날인 15일 토요일에는 지리산 둘레길을 트레킹한 후 다시 버스를 탑승하고 서울로 복귀하였다.

3) 참여한 봉사자들의 역할

‘지리산 둘레마을 자원봉사 트레킹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특징은 다양했다. 남·여의 비율은 비슷했다. 연령은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으며,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자원봉사 트레킹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봉사형태 별로 조가 구성되었다. 모두 9개조로 구성되어 봉사활동을 하였다.

<표 7> 봉사형태별 조 구성

구분	봉사형태
벽화팀 (10명)	각 마을의 벽에 예쁜 그림을 그린다.
마을 UCC만들기 (5명)	각 마을의 특징을 살려 UCC를 제작한다.
장수사진촬영 (8명)	각 마을의 노인분들 장수사진을 촬영한다.
미용 및 피부마사지 (27명)	지역주민에게 마사지 해 준다.
노력봉사 1팀 (10명)	각 마을의 농작물 경작 및 일손을 돕는다.
노력봉사 2팀 (15명)	
노력봉사 3팀 (10명)	
노력봉사 4팀 (10명)	
노력봉사 5팀 (10명)	

4) 봉사자들의 행위

본 연구자는 장수사진촬영팀과 노력봉사 4팀의 일원이 되어 봉사를 하였다. 처음 봉사 활동 지역은 양묘장이다. 잡초를 제거하는 봉사를 하였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일에 집중했다. 가장 눈에 띄인 것은 아버지와 딸이 함께 봉사하는 모습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농촌지역주민들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일했다. 또 다른 봉사자는 함께 일하는 봉사자들에게 양묘장에서 자라는 약초 등을 설명해 주었다.





5) 봉사센터 관계자와 일반 봉사자의 담론

자원봉사를 하던 도중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일반 봉사자의 농촌에 관한 담론을 나누었다. 그 옆에서 청취 및 기록을 이용하여 요약하였다.

< 표 8 > 자원봉사 담론 분석

참여자	내용
관광객	“호텔, 콘도, 마트 등이 생기면 관광객의 소비로 인해 이 지역이 경제적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관계자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 콘도, 마트 등이 생기면 이 지역 주민들은 죽어나요. 대형 마트가 생기면 지역주민들이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요, 대형마트들은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마트에서 노동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관광객	“이 지역 근방에 슈퍼,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마을주민들 불편 하겠어요”
관계자	“이 지역사람들은 당신의 집이 도로와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해요, 혹시라도 놀러온 손자라도 다칠까봐 도로에서 멀리 살고 싶어 하세요. 오히려 자동차를 불편해 하시죠.”
관광객	“여기 공기도 그렇고, 경관이 너무 좋네요”

관계자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당신들이 가진 환경의 가치가 수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세요. 이런 환경을 도시에서 조성하려면 아마도 수 조원을 들여야 할꺼 예요. 도시의 조경 사업을 보면 지리산 환경을 बे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관광객	“ 이 지역에 이벤트 같은 것 열면 좋을 것 같은데, M.T.B같은거”
관계자	“우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자발적인 참여는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지리산에 M.T.B한다고 하면 벌떼같이 몰려들꺼예요. 근데 그러면 지리산 환경 다 망가져요. 돈 버는 것 보다 이 지리산을 보존 하는게 더 중요하죠. 도시사람들은 농촌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이벤트를 개최해서 돈을 벌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농촌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관광객	“여기 지리산 둘레 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금방 발전 되겠어요”
관계자	“저는 여기 지리산 둘레길과 마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거든요, 관광객들은 좋겠지만 농촌사람들은 자신의 터전을 내어주게 되고, 또 관광객은 쓰레기 버리고 농작물을 파괴하고 그래요. 이 둘레길이 많이 알려지면 좋겠지만, 천천히 알려져야 해요. 그래야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 느껴지는 이질감들이 많이 사라지고,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교류하며 지내는 여행이 될꺼 예요.”



2. 인터뷰

본 연구자는 공정여행에 참여한 4명의 여행자와 인터뷰를 하였다. 총 4명의 학생이이다. 대상자들은 23~25세의 현재 대학생이며, 두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그룹은 “충청그린프로젝트”에 참여한 여행자들이며, 또 한 그룹은 외국에서 책임여행을 바탕으로 14박 15일 동안 태국, 라오즈 지역을 여행한 여행자이다.

<표 9>충청그린프로젝트에 참여한 여행객들의 여행지에서의 행동

분류	행 위
교류	“점은 할아버지 댁에서 잤어요” “할머니 나가실 때 같이 따라 나가서 맛조개와 조개를 캐고 그것들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조개를 구어 먹었어요”

봉사	“감자도 캐고 담뱃잎 채취도 하고 마을 입구에 있는 화단에서 잡초도 뽑았어요”
체험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이 진짜 많았어요.” “(도시에는 없는)새로운걸 경험할 수 있어서 의욕을 가지고 했어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에서 자는 것이 신기했어요.”
불편함	“마트에 갈수 없어서 불편했어요.” “해가져도 할 것이 없고 일이 없어도 할 게 없고....”
여행 후 마음의 변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비우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내 생활만 고집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 패턴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배운다는 입장에서 가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입장으로 가면 좋을 거 같아요”

아래 표의 내용은 공정여행을 다녀온 여행객의 행위를 분석한 내용이다.

<표 10>공정여행을 다녀온 여행객의 행위

분류	행위	비고
공정여행에 대한 이해	A 여행 속에서 자연스레 실천이 될 수 있는 여행으로서 현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고 타인을 배려하는 여행, 자연을 배려하는 여행 문화를 배려하는 여행, 그 속에서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	
	B 사람냄새를 맡을 수 있는 아름다운여행.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문화를 교류하고 그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인과 하나의 문화콘텐츠를 마련하는 공간	
주변의 의식 및 행동	A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어 하였지만 쉬운 것부터 실천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짐	
	B 처음에는 약간의 실수(숙소에 짐 버리기, 음식남기기)를 하였지만 대부분 친환경적으로 참가함	
일반여행과 공정여행의 차이	A 일반여행 : 개인적인 즐거움만을 채우기 위해 환경이 파괴됐던, 동물이 학대받던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개인을 위한 여행 공정여행 : 그들도 같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떠남”이 아닌 “만남”, “소비”가 아닌 “관계”	
	B 일반여행 : 타지에서 누리는 편안한 서비스, 부귀영화 공정여행 : 타지에서 얻는 또 하나의 문화 그리고 생각주머니	
활동내용	A 현지음식 먹어보기, 현지물품 구입하기, 소수민족마을에서 숙박하기	
	B 택시보다는 지역 버스. 지역민이 운영하는 교통이용, 현지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이용	
여행 전 마음가짐	A 생소한 여행형태로 느껴졌기 때문에 고생하겠구나, 어려운 여행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듦	
	B 배낭여행도 아니고 자유여행도 아닌 애매모한 공정여행의 정의 때문	

		에 약간의 혼동을 지님 생소한 여행형태라서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임함	
여행 후 마음의 변화	A	사람들의 새로운 여행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공정여행이 장기적인 여행으로 발전 할 것이다.	
	B	편안함을 추구하는 여행보다 내가 쓰는 돈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여 행이 하나의 관계를 꾸며나가지를 생각하게됨.	

공정여행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아래 여행을 한다면 일반여행을 하는 모습보다는 새로운 모습의 여행을 창조할 수 있을 뿐더러 개발과 교육에 지쳐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설문지

<표11>관광객 특성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성별	남	25	50	연령	20세 이하	1	2
	여	25	50		21~30세	15	30
직업	회사원	6	12		31~40세	10	20
	전문직	8	16		41~50세	11	22
	자영업	12	24		50대 이상	13	26
	학생	6	12	학력	고졸 이하	20	40
	주부	8	16		대학 재학중	6	12
	기타	10	20		대졸	20	40
소득	100만원 미만	9	19.6		대학원 이상	4	8
	101~150만원	8	17.4	목적	자연체험	4	8
	151~200만원	7	15.2		휴식	16	32
	201~250만원	4	8.7		가족나들이	25	50
	250만원 이상	18	39.1		기타	5	10

연령별로는 21~30세가 15명(30%), 50대 이상이 13명(26%), 41~50세가 11명(22%), 31~40세가 10명(20%), 20세 이하가 1명(2%) 등의 순이었다. 역시 혈기 왕성한 21~30세의 1순위를 차지했지만 경제력이 있는 40세 이후의 사람들이 절반이상이상을 차지 하였다. 하지만 20세 이하는 역시나 오기가 불편한 곳이어서 수가 적은것 같았다.

<표 12>전체응답자의 평균점수와 성별 점수

질문항목	남자	여자	전체
나는 여행지의 규범과 규칙을 따른다.	3.88	3.72	3.80
나는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미리 알고 떠난다.	3.20	2.76	2.98
나는 내가 지출한 내용의 일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	3.92	3.88	3.90
나는 여행지에서는 자연 보호 규칙을 지킨다.	3.88	4.12	4.00
나는 현지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며 시설을 이용한다.	3.76	3.83	3.80
나는 여행지의 동·식물들을 채집하거나 수집하지 않는다.	3.52	4.04	3.78
나는 환경 친화적 상품과 시설로 인해 불편한 것을 감수 할 수 있다.	3.38	3.48	3.43
내가 지출한 비용의 일부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	3.88	3.68	3.78
나는 여행을 하면서 그곳의 자연을 배우려고 이해하고 노력한다.	3.88	3.68	3.78
나는 현지주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박시설을 이용한다.	3.64	3.63	3.63
나는 현지주민의 생활 방식을 미리 알고 관광을 떠난다.	2.72	2.88	2.80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량보다는 도보를 이용한다.	2.64	2.68	2.66
나는 여행 이후 그곳의 자연환경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한다.	3.52	3.72	3.62
나는 등산 등의 여행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가져와 분리수거를 한다.	3.76	2.68	3.72
나는 여행을 할 때 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낙서, 훼손)	4.32	4.40	4.36

남녀 모두 마지막 문항에는 높은 점수(4.36)를 얻었다. 이는 필시 여행지의 문화 재나 공공장소, 공공물품등을 소중히 하는 마을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이다. 또한 자연보호에 관한 질문(4.00)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어 자연보호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차량과 도보에 관한 질문에서는 낮은 점수(2.66)를 얻어 책임의식이있는 공정여행보다는 몸이 편하고 편리한 차량을 선호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책임관광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연령층에 따른 평균점수

질문항목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세 이상	합계
나는 여행지의 규범과 규칙을 따른다.	5.00	3.60	3.60	4.18	3.77	3.80
나는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미리 알고 떠난다.	5.00	2.80	2.80	3.09	3.08	2.98
나는 내가 지출한 내용의 일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	4.00	3.80	4.20	3.91	3.77	3.90
나는 여행지에서는 자연 보호 규칙을 지킨다.	5.00	4.00	4.00	4.36	3.62	4.00
나는 현지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며 시설을 이용한다.	5.00	3.80	4.00	4.20	3.23	3.80
나는 여행지의 동·식물들을 채집하거나 수집하지 않는다.	4.00	4.07	3.80	4.18	3.08	3.78
나는 환경 친화적 상품과 시설로 인해 불편한 것을 감수 할 수 있다.	5.00	3.40	3.56	3.55	3.15	3.43
내가 지출한 비용의 일부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	4.00	3.60	3.80	4.36	3.46	3.78
나는 여행을 하면서 그곳의 자연을 배우려고 이해	4.00	3.76	3.70	3.91	3.85	3.78

하고 노력한다.						
나는 현지주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박시설을 이용한다.	4.00	3.80	3.40	4.27	3.00	3.63
나는 현지주민의 생활 방식을 미리 알고 관광을 떠난다.	4.00	2.60	2.70	3.27	2.62	2.80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량보다는 도보를 이용한다.	4.00	2.53	2.00	3.36	2.62	2.66
나는 여행 이후 그곳의 자연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한다.	4.00	3.53	3.60	4.06	3.31	3.62
나는 등산 등의 여행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가져와 분리수거를 한다.	4.00	3.53	3.50	4.45	3.46	3.72
나는 여행을 할 때 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낙서, 훼손)	4.00	4.47	4.10	4.45	4.38	4.36

나이에 따른 분류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역시 낙서, 훼손에 관한 질문이다.(4.36)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재나 자연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은 낙서에 몸살을 격고 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식물원의 식물, 바닷가 주변의 등대들도 몸살을 격고 있다. 이렇게 높은 점수에도 그런 낙서들을 보니 아이러니 하다. 제일 낮은 점수는 바로 차량과 도보에 관한 것이었다. 역시나 편안 것을 추구하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1~40세 까지의 점수가 2.00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는데 이는 경제력과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더 편안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되려 41~50세는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고 50세 이상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 차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4> 직업에 따른 평균점수

질문항목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	학생	주부	기타	합계
나는 여행지의 규범과 규칙을 따른다.	3.33	3.63	3.58	3.67	4.25	4.20	3.80
나는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미리 알고 떠난다.	2.67	2.88	3.42	2.33	2.75	3.30	2.98
나는 내가 지출한 내용의 일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	3.67	3.75	4.17	4.00	3.75	3.90	3.90
나는 여행지에서는 자연 보호 규칙을 지킨다.	4.00	3.88	4.00	4.00	4.13	4.00	4.00
나는 현지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며 시설을 이용한다.	3.83	3.88	3.85	3.83	3.71	4.00	3.80
나는 여행지의 동·식물들을 채집하거나 수집하지 않는다.	3.50	4.13	3.58	3.83	3.75	3.90	3.78
나는 환경 친화적 상품과 시설로 인해 불편한 것을 감수 할 수 있다.	3.67	3.25	3.64	3.17	3.38	3.40	3.43
내가 지출한 비용의 일부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	3.83	3.50	3.83	3.83	4.13	3.60	3.78
나는 여행을 하면서 그곳의 자연을 배우려고 이해하고 노력한다.	3.50	3.75	3.83	3.50	3.63	4.20	3.78
나는 현지주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박시설을 이용한다.	3.50	3.50	3.82	3.33	3.38	4.00	3.63
나는 현지주민의 생활 방식을 미리 알고 관광을 떠난다.	2.50	2.50	2.58	2.33	3.38	3.30	2.80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량보다는 도보를 이용한다.	2.17	2.13	3.00	2.83	2.75	2.80	2.66
나는 여행 이후 그곳의 자연환경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한다.	3.33	3.75	3.42	3.67	3.88	3.70	3.62
나는 등산 등의 여행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가져와 분리수거를 한다.	3.17	3.38	3.92	3.50	4.13	3.90	3.72
나는 여행을 할 때 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낙서, 훼손)	4.33	4.00	4.50	4.83	4.13	4.40	4.36

직업에 따른 분류에서는 낙서, 훼손에 관한 질문에서는 4.84점으로 학생 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른 직업군도 월등한 점수를 얻었지만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추측해본다. ‘현지주민의 생활방식을 미리 알고 관광을 떠난다’라는 질문에서는 회사원이 2.50점, 주부가 3.38점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미디어 매체를 누가 더 많이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주로 밖에서 생활을 하는 직업군들은 점수가 낮으데에 비해 집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직업군이 주부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TV나 라디오등 매스미디어와 자주 접촉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는 주부들이 그 지역의 생활 방식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 된다.

<표 15> 학력에 따른 평균점수

질문항목	고졸이하	대학재학중	대졸	대학원이상	합계
나는 여행지의 규범과 규칙을 따른다.	4.00	3.67	3.60	4.00	3.80
나는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미리 알고 떠난다.	2.90	2.33	3.10	3.75	2.98
나는 내가 지출한 내용의 일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	3.75	4.00	4.00	4.00	3.90
나는 여행지에서는 자연 보호 규칙을 지킨다.	3.85	4.00	4.10	4.25	4.00
나는 현지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며 시설을 이용한다	3.47	3.83	3.95	4.50	3.80
나는 여행지의 동·식물들을 채집하거나 수집하지 않는다.	3.60	3.83	3.90	4.00	3.78
나는 환경 친화적 상품과 시설로 인해 불편한 것을 감수 할 수 있다.	3.47	3.17	3.35	4.00	3.43
내가 지출한 비용의 일부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	3.85	3.83	3.55	4.50	3.78
나는 여행을 하면서 그곳의 자연을 배우려고 이해하고 노력한다.	3.55	3.50	3.90	4.75	3.78
나는 현지주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박시설을 이용한다.	3.50	3.33	3.74	4.25	3.63
나는 현지주민의 생활 방식을 미리 알고 관광을 떠난다.	2.95	2.33	2.65	3.50	2.80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량보다는 도보로 이용한다.	2.65	2.83	2.45	3.50	2.66
나는 여행 이후 그곳의 자연환경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한다.	3.60	3.67	3.60	3.75	3.62
나는 등산 등의 여행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가져와 분리수거를 한다.	3.55	3.50	3.85	4.25	3.72
나는 여행을 할 때 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낙서, 훼손)	4.10	4.83	4.35	5.00	4.36

학력에 따라 나는 표에서는 학력이 가장 높은 대학원이상의 그룹이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고학력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편 저학력자는 책임여행에 관한 의식이 낮을줄알았는데 의외로 다른 학력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몇몇 문항에서는 최하점을 받았다. 이는 책임여행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배움의 깊이와는 상관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책임여행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여행이라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하지만 고학력자이든 저학력자이든 편안함과 안락에 길들여져 있어 차량과 도보에 관한 질문에는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표 16> 소득에 따른 평균점수

질문항목	100만 원 미만	101~ 150만 원	151~ 200 만원	201~ 250 만원	250만 원 이상	합계
나는 여행지의 규범과 규칙을 따른다.	3.78	3.75	3.57	3.75	3.89	3.78
나는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미리 알고 떠난다.	2.22	3.00	3.00	2.75	3.44	3.00
나는 내가 지출한 내용의 일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	4.00	3.63	3.86	4.00	4.06	3.93
나는 여행지에서는 자연 보호 규칙을 지킨다.	4.00	4.25	3.86	3.75	4.00	4.00
나는 현지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며 시설을 이용한다	3.67	4.13	3.57	3.50	3.83	3.78
나는 여행지의 동·식물들을 채집하거나 수집하지 않는다.	3.67	4.00	3.14	4.00	3.89	3.76
나는 환경 친화적 상품과 시설로 인해 불편한 것을 감수 할 수 있다.	3.33	3.63	3.00	3.67	3.44	3.40
내가 지출한 비용의 일부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	3.78	3.50	3.43	3.75	3.89	3.72
나는 여행을 하면서 그곳의 자연을 배우려고 이해하고 노력한다.	3.56	3.75	3.86	3.50	4.00	3.80
나는 현지주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박시설을 이용한다.	3.00	4.25	3.17	3.25	3.78	3.58
나는 현지주민의 생활 방식을 미리 알고 관광을 떠난다.	2.56	3.13	2.57	2.25	2.83	2.74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량보다는 도보를 이용한다.	2.56	2.75	2.71	1.75	2.67	2.59
나는 여행 이후 그곳의 자연환경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한다.	3.44	3.75	3.86	3.25	3.50	3.57
나는 등산 등의 여행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가져와 분리수거를 한다.	3.33	3.63	4.00	3.75	3.67	3.65
나는 여행을 할 때 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낙서, 훼손)	4.44	4.13	4.57	3.75	4.44	4.35

소득에 따른 분류에서는 특이한 공통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책임여행의 행위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할 수도 있다.

<표 17> 여행 목적에 따른 평균점수

질문항목	자연 체험	휴식	가족 나들이	기타	합계
나는 여행지의 규범과 규칙을 따른다.	3.75	3.56	3.92	4.00	3.80
나는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미리 알고 떠난다.	2.75	2.94	2.96	3.40	2.98
나는 내가 지출한 내용의 일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	4.00	3.75	3.92	4.20	3.90
나는 여행지에서는 자연 보호 규칙을 지킨다.	3.50	4.40	3.80	4.20	4.00
나는 현지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며 시설을 이용한다.	3.25	4.25	3.63	3.60	3.80
나는 여행지의 동·식물들을 채집하거나 수집하지 않는다.	3.00	4.19	3.80	3.00	3.78
나는 환경 친화적 상품과 시설로 인해 불편한 것을 감수 할 수 있다.	2.75	3.63	3.63	2.40	3.34
내가 지출한 비용의 일부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	4.25	3.81	3.76	3.40	3.78
나는 여행을 하면서 그곳의 자연을 배우려고 이해하고 노력한다.	4.25	3.69	3.68	4.20	3.78
나는 현지주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박시설을 이용한다.	2.75	3.94	3.52	4.00	3.63
나는 현지주민의 생활 방식을 미리 알고 관광을 떠난다.	2.75	2.75	2.80	3.00	2.80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량보다는 도보를 이용한다.	2.25	2.75	2.68	2.60	2.66
나는 여행 이후 그곳의 자연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한다.	3.75	3.63	3.48	4.20	3.62
나는 등산 등의 여행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가져와 분리수거를 한다.	3.25	3.69	3.76	4.00	3.72
나는 여행을 할 때 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낙서, 훼손)	5.00	4.56	4.20	4.00	4.36

이 표는 여행목적에 의해 분류된 표이다. 역시나 낙서와 훼손에 관한 질문에서는 모두가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질문은 차량과 도보에 관한 질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체험을 하기위해 온 관광객들도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자연을 보호를 해야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친환경적 상품으로인 해 불편한것들을 감수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기타의견이 2.40의 점수를 얻어 아무리 친환경적인 것이라도 자신에게 불편하면 주면 감수할 수 없다는 책임 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시사점

1. 농촌책임관광의 이해 부족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이미지는 낙후되고 도와주어야 할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놓고, 먹고, 즐기는 관광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접목된 농촌관광은, 가서 먹고 놀며 소비 하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또한 정부의 그린투어리즘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농촌은 그린투어리즘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현실은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과, 그 개발에 피해의 대상이 되는 농민의 모습이다. 이제 농촌을 개발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기술적인변화가 아닌 관광객의 마인드의 변화가 생겨야 할 시기이다. 이는 즉 책임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한 관광보다는 농촌을 위한 소비와 생태보호, 농촌의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 관광객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윤리적인 여행을 해야 한다. 책임관광의 형태가 생겨나고 있는 요즘,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바른 여행을 위한 관광객들의 책임여행의 이해와 페어플레이가 필요하다.

2. 농촌책임관광의 가이드라인 부재

각 농촌관광지마다 붙어있는 경고문이나 협조문에 쓰인 내용이 다 다를 뿐더러 지역마다 통일성이 없고 생김새와 크기마저도 다르다. 또한 개인이 직접 만들어 놓음으로서 공공성이 떨어지고 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여행에 관한 확고한 가이드라인과 홍보, 그리고 관광객들에게의 교육, 더 나아가 미래의관광객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3. 농촌책임관광의 시민활동 미비

책임여행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는 매우 생소할 것이다. 그래서 책임여행을 주제로 한 개인 블로그 및 기타 활동이 부족해 관광객들이 인지하기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객 자신만의 윤리적인 여행 형태가 필요하다.

VI. 농촌 책임여행을 위한 대안

1. 책임 있는 관광자 행동 촉구.

관광자들의 농촌관광에 대한 의식 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회용품을 자제하며, 관광지 현지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현지 문화를 배우고 주민들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여행을 한다. 또 소비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현지 주민이 운영하는 상점에 가서 소비를 해야 한다.



<그림 5> 책임여행자를 위한 10계명

2. 농촌과 관광자가 상생하는 정책 전개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 활성화 정책과 주민들의 교육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뿐 만이 아닌, 관광객과 현지 주민이 함께 수평적 관계에서 교류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을 소비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공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규모의 남발성 재정지원 정책보다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농촌 관광 전문가 양성 정책을 확대하여 농촌관광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가칭 ‘한국농촌관광발전 협의회’ 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농촌관광지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하며 농촌관광분야 전문지식 교류체계를 마련해야한다.

3. 미디어의 시점 전환

관광과 미디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농촌을 오락의 대상, 촬영세트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농촌과 관광객들이 미디어를 통해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사실과 왜곡된 프로그램의 전파를 자제하고, 미디어가 농촌을 찾았을 때 농촌주민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새로운 미디어를 창조해 내어야 한다.

4. 농촌책임여행에 관한 학문적 체계구축

일반 농촌관광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농촌책임여행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농촌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연구가 아닌, 관광객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 관광객이 책임여행에 관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하여 관광객과 농촌지역주민 간의 올바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농촌관광개발이라는 정책아래 많은 농촌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다. 현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이고 모두가 서로 돕고 사는 공존의 사회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에 문제를 야기해 한 사회가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된다. 관광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어느 한쪽이 변화와 개발을 강요당한다면, 그 것은 잘못된 관광의 형태이다. 현재까지 농촌을 소비의 형태로 본 결과 많은 농촌관광 정책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농촌은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관광객들의 잘못된 여행의식과 행태로 농촌지역은 발전보다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관광객과 농촌지역 주민들 사이에 이질감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만 변화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의 인식변화가 수반되었을 때만이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 즉, 이제는 관광객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행을 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관광형태와는 전혀 다른 봉사와 희생, 공존 및 교류를 말하고 있는 새로운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사회전반적인 트렌드가 된다면 농촌의 환경보존과 동시에 관광객은 여행의 즐거움, 여행의 참맛을 알 것이다. 또한 관광객과 농촌지역주민의 정직한 교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광객이 책임의식을 가진다면,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시에 외국 보다 앞서나가는 관광선진국으로 도약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학술 자료

- 강신겸(2007), 『농촌관광』, 대왕사.
- 주성수(2005), 『자원봉사』, 아르케.
- 최혜경(2009), 책임여행에 관한 연구.
- 임영신·이혜영(2009), 희망을 여행하라, 이매진피스.
- 강내희(2006),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 김종민(2006), 우리나라 외래객 대상 농촌 연수시장 활성화 방, 한국관광공사.
- 오현석(2006), 농촌관광 지원체계개선 및 상품전시화를 위한 해외 사례연구, 한국관광공사.
- 김예지,우윤미,이지연(2008), 스토리텔링형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방향.
- 원종태·서우석(2007)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발전을 위한 주요 농외소득원의 활용 방안
- 김예지,우윤미,이지연(2008), 스토리텔링형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방향, 대산농촌무화재단 우수상 수상논문
- 최인호(2004), 영상 촬영지 관광객의 체험:바보선언 p,110~111' 사례, 한국·관광레저학회 학술집
- 최인호(2005), 미디어를 통한 관광지의 사회적 구성과정 -일본인 관광객의 겨울연가 사례-